박원자의 母情佛心 ⑩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가 두 명이다. 친모는 싯다르타 태자를 낳고 7일 만에 죽고, 이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태자는 출가해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됐고, 그를 길러준 어머니는 출가해 제1 비구니가 됐다.

부처님 어머니, 제1비구니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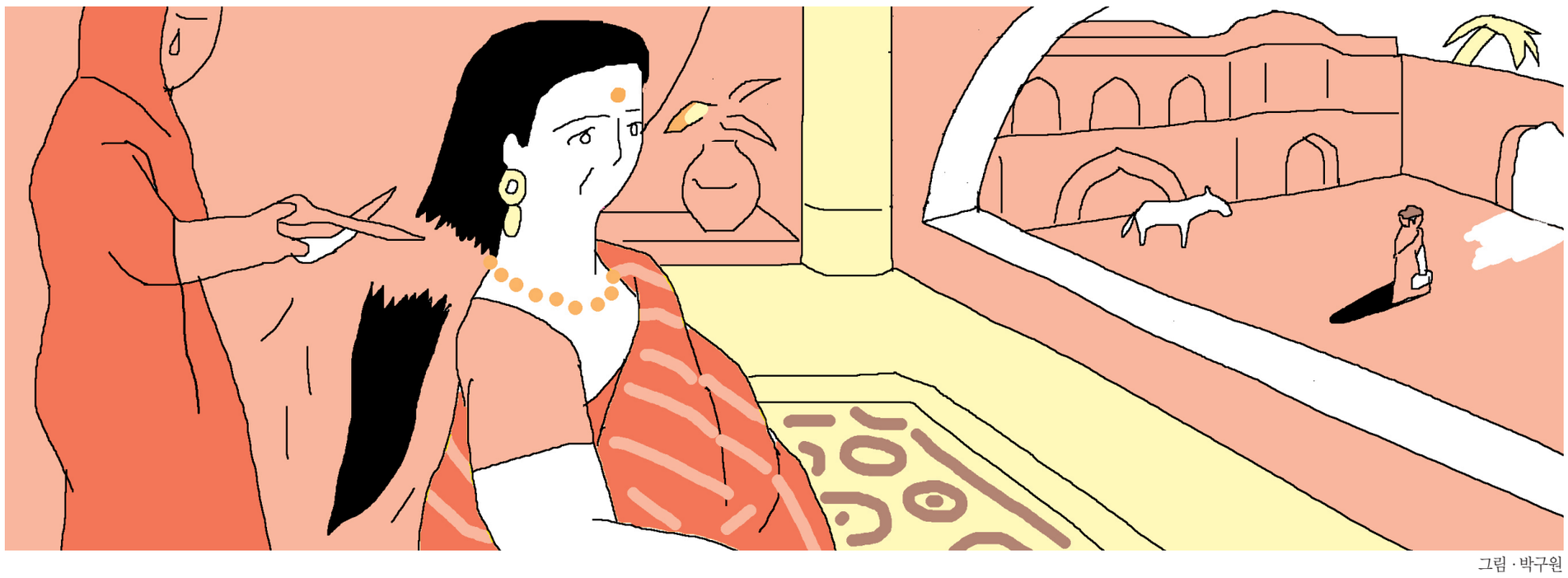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에 닿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불성의 현현임을 느끼게 하는 5월이다. 동네 뒷산의 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찌른다. 도서관 옥상엔 분홍빛 패랭이꽃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계절을 초월해 피어있는 코스모스 몇 그루도 아름답다. 이 눈부신 계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역사적으로 비구니 스님 출가 1호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비구니 스님들의 스승이자 1호 선배가 부처님의 어머니인 것이다. 아들이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세간을 떠나 혹독한 수행 끝에 부처가 되었고, 아들이 간 그 길을 따라 어머니 또한 왕비의 옷을 벗고 출가했으니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이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두 분이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출산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길러준 이모가 또 한 분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道)를 이루고 고향 카필라성에 들렀을 때다.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을 설했다. 세상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며 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에 설했다. 부처님이 설한 진리와 그 범접할 수 없는 위의에 반한 것일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들 라훌라와 이복형제들을 비롯해 사촌형제들까지 젊은 청년 수백 명이 출가했다.

급기야 어머니도 출가수행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아들이 있는 방을 찾았다. 아들은 선정에 든 듯 고요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니는 온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아들이었던가.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자신이 키웠다. 내 속으로 낳진 않았으나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웠다. 자신의 아들은 유모에게 젖을 물리게 했어도 저 아들만은 품에 안아 젖을 먹였다. 조금도 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젖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었다.

그러나 아들은 명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쩌면 일찍 돌아간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정을 주었다. 아들은 성 밖의 국민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평등하지 못한 삶에 고뇌하는 것 같았다. 커갈수록 가난과 불평등의 사회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생로병사를 되풀이 하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물어보았다. "너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자가 아니냐. 그러려면 전투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전투에 능하려면 사냥을 통해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 걱정이구나."

"어머니, 꼭 전쟁을 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싸우지 않으면 왕국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아들은 그 후로도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길을 모색하는 듯 했다. 아무래도 국왕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전히 활을 쏘고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으나 그것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훌쩍 말을 탄 채 담을 넘어 세간 밖으로 사라졌다. 말할 수 없이 서운했다. 돌아오리라 기다렸다.

기다리기를 여러 해, 드디어 아들이 왕궁을 찾았다. 아들의 모습은 늠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아침마다 이 집 저 집으로 밥을 빌러 다닌다고 했으나 아들의 모습은 당당함과 위의로 가득했다. 보는 사람마다 무릎을 꿇고 귀의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두고 갔던 자식을 보아도 동요함이 없었고, 아내인 태자비에게도 담담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마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저도 출가를 하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

사성계급이 지금보다도 더 강했을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성이 출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의 출가는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어느덧 일흔 살이었다. 그토록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성계급을 뛰어넘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선언했던 부모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머니, 여성의 출가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완곡하게 집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수도하는 방법을 일러드렸을 것이다. 어머니는 부처님이 카필라 성에 머무는 동안 몇 번이나 출가를 간청했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고, 아들은 성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출가에 대한 염원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아들이 떠난 후 더욱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복락은 꿈같고 물거품 같고 허깨비 같이 느껴졌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픔이 차오르는 감정들도 한낱 이슬과 같고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번갯불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을 윤회할 것 같았다. 출가한 아들은 그것을 벗어난 것 같았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인 자신은 그걸 알 수 있었다.

태자시절 부처님을 키운 모친
출가 · 정각 후 부처님 만나고
스스로 발심해 출가하길 간청
아난의 도움에 여성출가 가능
제 1호 비구니 출가자로 기록

또 아들은 모든 석가족들을 향해 '영원한 나'를 찾아야 자유로울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자신도 드디어 왕궁을 떠나 아들에게 귀의,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머리를 삭발하고 화려한 왕비의 옷을 벗었다. 아들이 떠나고 5년 뒤였다.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 500여 명의 여인들이 따라나섰다. 며느리이자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아쇼다라 태자비를 비롯해 왕궁에서 일하던 여인들, 석가족 여인들이 먼 길을 떠났다. 왕비를 따라 수 백리의 흙길을 걸어가는 여인들을 상상해본다. 이들이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최초 선배들이다. 2600년 전의 일이다.

어머니는 먼 길을 걸어와 아들이 머물고 있는 기원정사 문 앞에 섰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 앉아 있었다. 신발은 해어졌고 발은 부어올라있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아난이 이 광경을 보았다. 맨 앞에 서 있는 늙은 여인을 보자 곧바로 그녀가 부처님을 키운 어머니이자 왕비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마임을 알았다.

"아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머니도 아난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카필라성에 오셨을 때 출가를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기다릴 수 없어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난감했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난에게 돌아가시게 하라고 전했다. 아난이 인간적으로 호소했다.

"세존을 정성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이십니다. 노쇠한 몸으로 카필라 성에서 이곳 기원정사까지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끝내 허락하지 않자 아난이 지혜를 내서 말했다.

"여인들도 계를 받고 정진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출가를 허락하셔서 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마침내 허락을 했다. 그리고 함께 상주하고 있던 천이백 비구들을 불러놓고 여인들도 출가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위대한 선언이었다. 계급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고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도임을 보인 일대 대사건이었다.

왕의 자리를 내놓고 집을 떠나와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그 아들에 그 어머니였으니 출가 후 얼마나 치열하게 정진했을까. 왕비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자유를 위해 고행의 길로 들어섰으니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더구나 자신의 뒤에 500여 명의 여인들이 출가해 따라오고 있었으니 그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이다. 훗날, 부처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칭송했다.

"내 성문 가운데 제일의 비구니로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도를 배워 국왕의 존경을 받는 이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이고, 지혜롭고 총명한 이는 바로 식마 비구니이며, 신족(神足)이 제일이어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는 이는 바로 우발화색 비구니이고, 두타법의 열 가지 한애(限碍)를 행하는 이는 기리사구담미 비구니이고…(중략)"

이로써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출가가 시작되었다. 당시 자이나교 등을 비롯해 다른 종교들이 여성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성계급이라는 철벽같은 계급제도로 인해 자유가 허용되지 않던 상황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함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여성들에게 인간 해방의 출구를 마련해준 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는 이후 영원한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길이 되어주었다. 시공간을 초월해 많은 왕비들도 출가했고 전쟁에서 지아비와 자식을 잃은 양반가의 여인들도 출가하게 했다. 못 배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출가해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아들딸이 출가하자 따라서 출가한 어머니들도 적지 않다. 어떤 어머니는 도를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는 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출가를 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출가를 하며 집을 떠나자 함께 집을 나와 출가했다.

불교 역사상 비구 출가 1호는 부처님, 비구니 출가 1호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인류의 성자가 된 부처님 집안답다.

〈작가〉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작은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재)명원문화재단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다도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9월 개강 안내

교육과정 소개

구분	과정명	기간	주 교육 내용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준사범 과정(3급)	15주	잎차 다례법, 다례 예절
	사범 과정(2급)	15주	가루차 다례법, 다례 예절
명원 다도대학원	다인 과정(1급)	1년	한국 차 문화, 차 품평, 함말차
	명인 과정(지도사)	1년	세계 차 문화, 궁중다례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공익법인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인력양성기관입니다.

(재) 명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myungwon.org
TEL | 010-5020-5830
E-MAIL | myungwonteaacademy@gmail.com